

해외여행 상승기류 만난 항공사... LCC, 완벽 흑자 노린다

2월 국제선 운항률 64% 회복
LCC, 수요 대응위해 증편 분주
에어부산, 부산~가오슝 재운항
진에어, 인천~마카오 매일 운영
티웨이, 시드니 노선 특가 행사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격에 올랐다. 겨울 여행 성수기를 거치며 폭발적인 여객 수요가 수익을 견인한 덕분이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7일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이전 운항률의 70% 가까이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월별로 국제선 여객 수를 보면 ▲9월 121만4867명 ▲10월 162만7206명 ▲11월 207만2764명 ▲12월 278만7590명 ▲2023년 1월 323만8575명 ▲2월 323만993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178만2313명으

로 2019년 1월의 291만명 대비 62% 수준까지 회복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108.9%(약 12배) 증가했다. 2월 국제선 운항 편수도 1만7450편(출·도착)으로 2만7365편을 기록한 2019년 동월과 비교해 63.7%까지 회복한 모습이다.

항공업계는 일본을 비롯한 국제선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에어부산은 오는 29일부터 부산~가오슝 노선을 재운항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부산~타이베이 노선의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엔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진에어는 다음 달 23일부터 인천~마카오 노선을 매 1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은 야간 비행으로 여객을 운영할 수 없지만 야간 시간을 기준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은 마카오는 최적의 도시"라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는 장거리 노선 운항도 순항 중이라 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사로 꼽힌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연말에는 인천~시드니 노선 신규 취항으로 'LCC의 장거리 노선 도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티웨이항공은 신규 특가행사인 '월간티웨이'를 선보이며 정기 프로모션

을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시드니 노선의 경우는 인천~시드니 47만1280원부터 판매돼 대형항공사(FSC)보다 20% 가량 낮은 운임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CC들의 흑자 유지·전환 전망은 밝은 상태다. 에프엔가이드는 진에어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1065억원, 영업이익 85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액 1조4641억원, 영업이익 1277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분기 흑자전환에는 실패한 에어부산도 올해 매출액 8078억원, 영업이익 969억원

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온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 받은 이스타항공까지 오는 26일로 재운항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가입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는 국내선 김포~제주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국제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 무비자 입국허가 이후로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여객 수요를 차지했고, 앞으로 중국까지 단체 비자 관광이 허가된다면 수요 회복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항공업계는 1분기와 3분기는 흑자, 2분기와 4분기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각 항공사의 흑자 전환 규모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한국이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국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를 잡지 못했지만, 항공업계는 빠르면 3월 중국 양회 이후 방한 단체여행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명성 "CCS 사업 강화... 탄소중립회사로 거듭날 것"

(탄소 포집·저장)

SK어스온 사장 인터뷰
파이낸셜 스토리 실현 노력 구체화
7년내 200만톤 CCS 저장소 확보



명성 SK어스온 사장 /SK어스온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사업자회사 SK어스온 명성 사장이 "석유개발(Upstream)과 친환경(Green)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회사(Carbon Neutral Company)'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명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식 보도채널 스킨뉴스(SKInno New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는 SK어스온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탄소 솔루션 제공자(Carbon Solution Provider)'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K어스온은 2021년 10월 1일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 및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현을 가속화했다. 기존 석유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영역으로 확장해 두 개의 축(Upstream & Green)으로 전환하는 것이 파이낸셜 스토리 달성을 위한 SK어스온의 핵심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석유개발 영역에서는 올해

하반기 운영권 사업 최초로 중국 17/03 광구의 원유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베트남 15-1/05 광구의 2025년 원유 생산 개시를 위해 베트남 정부 개발 승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친환경 영역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SK어스온은 탄소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영구히 저장'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중국 17/03 광구에는 발전기 배기가스의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설계를 반영했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30% 가량 저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K어스온은 지난 40년 간의 해외자원 개발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CCS 저장소 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30년 200만 톤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해, SK그룹 및 국내외 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 국가의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 사장은 "CCS 저장소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역량은 석유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지하구조 평가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며 "탄소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SK어스온이기에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탄소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명 사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발족한 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유가스(oilgas)의 글로벌 수요 등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준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전자는 최근 틱운에 신규 씨앗키트 3종을 출시했다.

LG전자 '틱운' 채송화·오발바질 등 씨앗키트 3종 출시

LG전자가 틱운에 반려 식물을 더한다.

LG전자는 최근 틱운에 신규 씨앗키트 3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틱운 미니용으로도 함께다.

새로운 씨앗키트는 채송화와 오발바질, 딜 등이다. 연암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한 결과물로, 디지털전환(DX)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산학공동연구로 개발했다. 꽃 씨앗키트뿐 아니라 허브도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새 씨앗키트는 채송화, 쫄면드라미, 비올라 등 꽃 3종으로 구성된 '컬러스 오브 러브2(Colors of Love 2)' 패키지, 오발바질, 딜, 루꼴라로 구성된 '이탈리안 허브2(Italian Herb 2)'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컬러스 오브 러브2 패키지 4만2000원, 이탈리안 허브2 패키지 3만6000원이다. 틱운 미니 고객은 딜과 루꼴라로 구성된 '향긋하고 소중한 패키지 B'를 통해 새 씨앗키트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4000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

SK머티리얼즈, 3900억 들여 美 탄소포집 기업 인수

CCUS 혁신기술 보유 '8리버스' 3억달러 추가투자로 경영권 확보



SK(주)머티리얼즈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8리버스 경영권까지 인수한다.

SK(주)머티리얼즈는 6일 이사회를 통해 8리버스에서 3억달러(한화 약 3900억원)를 추가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SK(주)머티리얼즈는 지난해 3월 8리

버스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CCUS 기술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 이번에 추가 투자를 통해 경영권까지 확보하면서 친환경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8리버스는 99% 이상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클린 전기와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특허를 갖고 있다. 천연가스 및 석탄을 원료로 별도의 설비 없이 내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과,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냉각해 액화 상태로 만들어 분리하는 방식으로 블루 수소를 생산한다.

SK(주)머티리얼즈 측은 "탄소감축이 글로벌 아젠다가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기저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

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안은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다"며 "8리버스는 혁신적 기술로 비용 경쟁력을 대폭 개선해 탄소감축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SK(주)머티리얼즈 사장은 "이번 인수로 8리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우리의 사업 역량이 더해져 더 큰 도약을 할 것"이라며 "탄소감축은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상과제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전 세계 넷제로 가속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